

최근 국내외 M&A 시장 동향

1980년대 후반부터 기업의 성장전략 수단으로 등장한 국내 M&A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핵심역량 집중을 위한 주변사업 정리,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관심이 고조되었다.

1999년까지는 대기업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유망중소기업의 M&A가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들의 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되어 M&A의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M&A의 최대 활성화 시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2001년부터 IT 업종의 거품이 붕괴되고 세계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부 초대형 합병들이 기대이하의 영업실적을 기록하는 등 M&A의 성공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여 M&A의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2년 이후 세계 및 국내 M&A 시장의 동향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세계 M&A 시장 위축

2002년 이후 세계 M&A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어 거래량 기준으로 약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거품의 붕괴, 세계경기의 침체, 분식회계 및 각종 기업 스캔들 등으로 인한 것이며, 투명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요구와 감시 강화, 국제정세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어 당분간 M&A 시장의 부활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벤처 및 통신서비스 관련 국내 M&A 시장의 확대

국내의 경우 M&A 관련 규제들이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면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M&A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3년 통신서비스 관련 M&A 시장에서 KT, SK, LG 등 주요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통신업계 M&A 시장 규모가 2조 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국내 M&A 시장의 급속한 확대 및 다양화

국내 기업의 사업부 매각이나 신규시장 진출 시 M&A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부감이 희석되고, 정책당국의 노력으로 인한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과정상의 장애 요인들이 점차 제거되고 있다.

국내기업간 M&A 증가

기업의 경영환경이 자유화, 개방화되고 산업내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성장력 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의 하나로 M&A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정부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보유지분 매각으로 인한 M&A 증가
 정부 또는 채권금융기관은 출자전환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 회사(Workout기업, 법정관리기업 등)에 대한 지분을 조기에 현금화(Exit)하기 위해 구조조정 회사의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수개발(A&D), 경영권 분쟁, 주식스왑 방식, 공개매수에 의한 M&A 증가

국내 M&A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M&A 거래 역시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M&A 증가

최근 나타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참여의지가 적었으며, 매각대금의 직접적인 국내유입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려는 반면 대외적으로는 인수자측인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환율의 극적인 하락으로 인수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경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장상황 하에서 국내기업 M&A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음 호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KOVA**

Deloitte & Touche

딜로이트투쉬 기업금융(Deloitte & Touche Corporate Finance)은 기업 금융 관련 자문서비스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기업금융 전문회사로서 7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금융서비스 (M&A, 외자유치, 민영화, IPO등)와 기업 구조조정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및 거래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전반의 전략적인 재무 자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